

Youngeun News

동행

11월

2025년 471호



2025년 마라나타 공연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은교회
www.youngeun.or.kr

color 2025 영은, 색을 입히다



“주변을 살피요.”


우리는 종종 앞만 보고 달리느라
주위를 둘러볼 여유를 잃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늘 주변을 살피보라고 하십니다.

내 곁의 누군가가 지쳐 있는지
홀로 추위를 견디는 건 아닌지
잠시 멈춰 주변을 돌아볼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실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잠언 19장 17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로마서 15장 2절) 

〈글 · 사진 : 서현이 기자〉

영은교회 창립 주후 1960. 04. 24



월간 동행 영은 홍보부

1984년 4월 27일 창간

발행일 제 471호 / 2025. 11. 2

서울시 영등포구 양산로 61 영은교회

전화. 02-2676-7171~2

월간 동행 E-mail, yemagazine@naver.com

발 행 인 이승구 목사

지도목사 최광주 목사

편 집 인 김석진 장로

편집차장 김창원 안수집사

서선이 권사

편 집 서선이 김경원B 윤정림

기 자 김명희C 서현이 이숙경

사진기자 허영준

디 자 인 디자인 샘

월간 동행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들의 삶과
간증을 나누는 교회 소식지입니다.

CONTENTS

02 그림이 있는 풍경

“주변을 살펴요.” / 서현이 기자

04 생명의 말씀

습관의 정석, 미워하는 습관 / 이승구 담임목사

07 믿고 알고 알고 믿고

‘거룩’이란 무엇인가? / 김민식 목사

09 동행

프랑스 떼제를 가다 <2> / 김명희 권사

11 웹진 동행

찾아가는 온 세대 예배 / 김정미(영아부 교사)

12 영은소식

보지 못하는 나와 볼 수 있는 영은 청년들과 함께 한 꿈 선교 /
신나라 (청년부)

영은 늘푸른학교 추계야외학습 / 백정란 권사(늘푸른학교 교사)

엘림 여성 중창단 정기연주회를 마치고 / 박미리 권사

2025년 전국학생성경고사대회 / 김창원 통신원

2025년 마라나타 정기공연 / 이단비 청년

이승철 목사 위임 및 임직예배 / 서선이 기자

20 Color & 찬양

제25회 영은가족찬양제 / 이덕형 안수집사

22 슬기로운 교회생활

교회언어 바로잡기 / 최광주 목사

23 빼딱하게

과몰입이 필요한 시대 / 이숙경 기자

24 교회안내

2025년 「월간 동행」 사역자 모집

살롱!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 하심을 생생한 글과 사진으로
남기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월간 동행과 함께 동역하실
사역자를 기다립니다.

「월간 동행」에서는 성도님들의 소식을 기다립니다.

영은 성도들과 함께 나누거나 알고 싶은 소식이 있으면
월간 동행 이메일(yemagazine@naver.com)로 사진과 함께
보내주세요.

편집회의 검토 후 월간 동행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습관의 정석, 미워하는 습관

(요한일서 4:20~21)



글 | 이승구 담임목사

■ 미워하는 습관

우리는 상처를 받을 때마다 상대를 미워하는 법을 익힙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불편함에서 시작되지만, 점점 그 사람의 말투, 표정 하나하나가 마음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상대가 한 마디만 해도 마음이 불편해지고 이름만 들어도 얼굴 표정이 굳어집니다. ‘미워하는 습관’이 형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미워하는 일은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가 듭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계속 생각하면서, 중요한 일이나 현재의 행복에 집중할 에너지를 빼앗깁니다. 그래서 미움은 궁극적으로 그 상대방보다 나를 더 소모시키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그러했습니다. 처음에 사울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골리앗을 무찌른 용맹한 다윗을 군대의 장수로 삼았고, 자신의 나라를 세워갈 젊은 인재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노래하자, 사울의 마음에 첫 번째 균열이 생겼습니다. 사울은 점점 다윗을 경계하며 의심의 눈초리로 주목하기 시작했고, 불쾌감과 분노는 습관적인 공격성으로 변했습니다. 다윗을 직접 죽이려다 실패한 사울은 아들 요나단과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결국 미움이 사울의 삶의 중심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일보다 다윗을 추격하고 감시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겼습니다. 성경은 사울의 미움이 최종적으로 그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삼상 18:29)”.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고, 그 자리에는 불안과 질투와 두려움이 가져온 미움이 가득했습니다. 미움이 습관이 되었을 때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작 다윗을 죽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못한 채 자신의 미움에 스스로 삼켜졌습니다.

미움은 언제나 자신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미움의 아이러니가 이것입니다. 미움의 대상보다 미워하는 내가 더 괴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워하는 습관은 나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미워하는 습관’은 우리의 영적 감각을 무디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둔화시킵니다.

먼저, 기도의 통로를 막습니다. ‘미워하는 습관’을 갖고 기도하면, 기도의 내용이 축복과 중보가 아니라 불평과 정죄로 변질됩니다. ‘미워하는 습관’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기도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장애물이 됩니다.

또한 말씀의 감동을 흐리게 합니다. ‘미워하는 습관’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영혼의 거울을 흐리게 만듭니다.

성경을 펼칠 때마다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화해하라'는 구절이 나의 미워하는 감정과 충동을 일으킵니다.

미움의 습관을 가진 영혼은 이 충돌 앞에서 말씀을 받아 들이기보다, 자신을 합리화하거나 말씀을 외면하게 되므로 진리로부터 오는 감동과 깨달음을 놓치게 됩니다.

예배의 본질도 왜곡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안에서 화해하고 연합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미워하는 대상을 향해 마음이 닫히고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미워하는 습관’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막는 울타리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형제를 외면하고 사랑하지 않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요일 4:20)”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기에 미워하는 습관은 결국 스스로 영적 단절을 선택하는 가장 위험한 길입니다.

■ 미워하는 습관에서 벗어나려면

1) 분명한 기준 갖기

미움은 대부분 ‘내가 기준이 될 때’ 시작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상대를 판단하고 마음을 닫습니다. “왜 저 사람은 나처럼 생각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알아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쌓일수록 판단의 중심은 점점 ‘나’에게 고정됩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 내 기준에 맞추어 재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미움의 뿌리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본질은 ‘내 기준’에서 ‘하나님 시선’으로 옮겨지는 데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억울함의 연속이었습니다.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 고소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미워할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통 가운데서도 요셉의 마음에는 ‘미움의 뿌리’가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준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들이 자신을 찾아와 엎드렸을 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창 50:20)” 요셉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형들의 악함’ 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인생의 주어를 “형들이” 에서 “하나님이”로 바꾼 기준의 전환이 곧 용서의 시작이자, 미움을 끊는 지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미워하는 습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분명한 기준’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어야 합니다. 미움은 ‘내 중심의 반복’에서 자라지만 사랑은 ‘하나님 중심의 훈련’에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 기준’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 그것이 바로 미움을 이기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2) 새로운 습관 만들기

미워하는 습관 대신 사랑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조롱당하고, 침 뱉음과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미워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단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사랑하는 습관의 시작입니다. 누군가 미워지려 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떠올리십시오. “나도 미움받을 만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는 고백이 반복될수록 사랑의 습관이 우리 안에 자라납니다. 이 고백을 의식적으로 반복할 때, 사랑의 습관은 우리 안에서 자라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선택입니다. 누군가가 미워지기 시작할 때, 미움받아 마땅한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 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해 봅시다.

사랑하는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작은 결심이라도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는 훈련을 반복해야 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방향으로 만들어집니다. ‘그 사람을 이를 악물고 사랑해야지’하는 다짐보다 ‘오늘 한 번 더 축복하자’하는 작은 실천이 더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이 작은 행동들이 꾸준히 쌓이면 어느새 미움의 자리에 채워지고 있는 평안과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습관을 만들어가는 훈련입니다. 하루 한 번의 기도, 한 마디의 축복의 말, 한 번의 침묵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가장 강력하고 실제적인 훈련입니다.

미워하는 습관은 영혼을 메마르게 하는 치명적인 습관입니다. 미움은 사소한 서운함에서 시작해 관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류까지 끊어버립니다. 그러나 미움이 습관이라면, 사랑 또한 훈련과 반복을 통해 우리 안에 뿌리내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미움을 완전하게 덮으셨듯이, 우리 또한 그 사랑을 실천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제 미움의 습관을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오늘부터 ‘사랑하는 습관’을 만들어 갑시다. 그리하여 하나님 사랑 안에서 관계가 회복되는 기쁨과,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감격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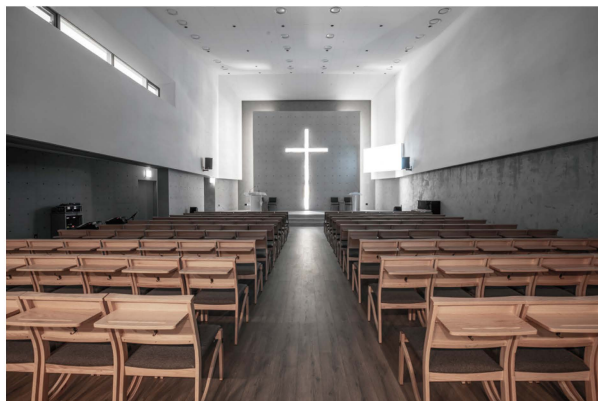


글 | 김민식 목사

‘거룩’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거룩’이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그러나 정작 ‘거룩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으면 선뜻 대답하거나 한 문장으로 정의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다. 거룩은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이며, 하나님께서는 ‘...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레 11:45)라고 명령하셨다.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살전4:3)라고 말씀하며, 거룩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요구하신 거룩이란 무엇인가?

1. 거룩의 용어 : 구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구약에서 ‘거룩’을 뜻하는 단어군은 동사 **קָדַשׁ** 〈카다쉬〉이다. 이로부터 파생된 명사 **קִדְּשׁ** 〈코데쉬〉와 형용사 **קָדָשׁ** 〈카도쉬〉로 구성되는데, 이는 모두 구약에서 약 850여 회 등장한다. 동사로 사용될 때는 ‘구별하다’ ‘성별하다’는 행동의 의미로, 명사는 ‘거룩함’ ‘성소’ ‘성물’ 등 영역이

나 사물의 의미로, 형용사는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신 이’ ‘거룩한 백성’ 등 존재적 상태의 의미로 사용된다.

거룩의 핵심적인 의미는 ‘구별’이다. 어떠한 것을 다른 것과 구분하여 특별히 나누고, 특정 목적과 소속을 위해 따로 떼어놓는 것을 의미한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시며, 그들을 ‘거룩한 내 백성’ ‘내 소유’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출 19:6). 세상 가운데 두셨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 속하지 않는 구별된 존재로 부르신 것이다.

교회와 성도도 동일하다. 교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성도는 ‘거룩한 무리’로, 모두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구별된 존재이다. 거룩은 하나님께 속함으로 주어지는 신분과 정체성이다. 따라서 거룩한 삶이란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사는 것을 말한다.

2. 거룩의 출발점 : 인간이 아닌 하나님


거룩의 출발점은 하나님이다. 거룩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으로,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이다. 이사야 6장 3절에서 하늘의 천사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찬양했다.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이자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으로, 존재적으로 구별되신 분이시다. 또한, 죄와 악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계시며, 절대적으로 의롭고 순결하신 분이

시다.

거룩은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된다. 세상에 스스로 거룩한 존재는 없다. 관계 속에서 부여되는 정체성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부터 시작된다. 주일을 지키는 것을 ‘주일 성수’,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예배를 위한 도구는 ‘성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을 ‘성전’이라 한다. 겉보기에 평범하고 일반적인 것이지만, 하나님께 속했기에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3. 거룩의 목표 : 닮음과 드러남

거룩은 세상을 등지고 떠나는 삶이 아니다. 세상은 우리

가 공존하고 침투해야 할 영역으로, 성경은 세상으로 나아갈 것을 가르친다. 세상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닮아 세상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바로 거룩의 삶이다. 거룩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 마치 군계일화처럼, 세상 속에서 거룩한 존재는 늘 돋보이게 된다. 거룩은 이상하고 눈에 띄는 것이다. 세상에서 돋보이지 않는 건 오히려 구별이 아닌 세상을 닮아 동화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구별된 삶’이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닮아가는 삶’이란 시각으로 접근해 보는 것은 어떠한가? 하나님을 닮아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룩의 여정을 걸어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 



유럽의 교회

프랑스 떼제를 가다 <2>

- 생트마리마들렌 교회에서 만난 스웨덴 루터교회 청년들 -

글 | 김명희 권사



떼제는 프랑스 부르고뉴 지방 남부, 그로스 강 위 언덕에 자리 잡은 한적하고 조용한 작은 마을이다. 그곳에 떼제 공동체가 있다. 로제 수사가 이곳 떼제에 공동체를 설립한 것은 탁월한 선택이었다. 단순함과 소박함을 추구하는 떼제 공동

체에 딱 어울리는 곳이다. 떼제 주변의 오래된 집들과 아름다운 풍경, 꾸미지 않은 자연의 멋스러움이 떼제를 찾는 이들의 마음을 행복하게 한다. 예수님이 살았던 동네도 이렇듯 소박했을까?

▶ 떼제 생트마리마들렌 교회와 화해의 교회

친구와 나는 떼제 정오 공동기도(예배)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떼제 주변을 산책했다. 돌로 지은 집들은 마치 동화 속 그림 같았다. 우리는 골목길을 걸으며 소박한 마을 풍경에 감탄했다. 길을 따라 걷다 보니 오래된 작은 교회가 보였다. 그 교회는 생트마리마들렌 교회(성 마리아막달라 교회)였다. 이 교회는 12세기에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건축된 가톨릭교회로, 1913년에 프랑스 역사기념물로 지정됐다. 현재는 가톨릭과 개신교 신자 모두에게 예배당을 개방하고 있다.



생트마리마들렌 교회와 마을 전경

떼제 공동체는 자체 교회 건물을 짓기 전에 생트마리마들렌 성당을 예배 처소로 사용했다. 1949년에 로제 수사가 떼제 공동체를 설립했을 당시, 수사들은 모두 개신교회 출신이라서 마을 성당에서 기도하려면 가톨릭교회 당국의 특별 허가를 받아야 했다. 다행히 파리의 교황대사가 이를 승인해 생트마리마들렌 성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1950년대 후반부터는 떼제 방문자 수가 늘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마당에 서서 예배드려야 했다. 더 큰 예배당이 필요했다.

그때 '속죄를 위한 평화 봉사활동'(Aktion Sühnezeichen Friedensdienste, ASF)이라는 독일 개신교회 단체가 떼제 공동체의 교회 짓는 일을 후원했다. 이 단체를 통해 독일의 많은 젊은이가 떼제로 와서 교회 건축을 도왔다. ASF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적국이었거나 독일이 점령했던 나라에 독일 젊은이들을 파견해 학교나 병원, 교회를 짓게 하면서

| 동행

속죄'를 실천하였다.

독일 젊은이들의 도움으로 1962년 8월에 폐제 공동체의 예배당이 완공되어 낙성식을 했다. 이 교회를 '화해의 교회'로 명명했다. 폐제 공동체는 새로 지은 화해의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됐다. 개신교뿐 아니라 가톨릭과 정교회 신자들도 화해의 교회에서 함께 기도했다. 화해의 교회 입구에는 손글씨로 쓴 화해의 나무판이 걸려있다.

여기 들어오는 그대, 화해하십시오.

아버지는 아들과

남편은 아내와

믿는 이는 믿지 않는 이와

그리스도인은 갈라진 그의 형제들과 ...



폐제 십자가

현재 생트마리마들렌 교회는 폐제 수사들의 개인 기도와 공동체 방문자들의 예배 처소로 사용되고 있다. 많은 폐제 방문객들이 이곳에서 피정이나 묵상, 개인기도 시간을 갖는다. 교회 마당에 있는 묘지에는 폐제 공동체 설립자인 로제 수사와 다른 수사들이 묻혀 있다.

▶ 생트마리마들렌 교회에서 만난 스웨덴 루터교회 청년들

친구와 나는 생트마리마들렌 교회 앞에서 사진 한 컷을 찍고, 예배당을 둘러보기 위해 안으로 들어갔다.

2017년에 리모델링한 예배당 내부는 폐제 화해의 교회처럼 단순하고 소박했다. 잠시 우리 뒤로 젊은이들이 들어왔다. 어느새 작은 예배당은 젊은이들로 가득했다.

예배가 시작됐다. 우리도 청년들 틈에 끼여 함께 예배했다. 뒤에 서서 예배를 드리는 이들도 있었다. 두 명의 여자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했다. 참석자들은 기타 반주에 맞춰 찬양을 참으로 흥겹게 진심으로 소리 높여 불렀다. 예배당을 가득 메운 찬송 소리가 내 마음을 울렸다. 그런데 이들의 언어를 통 알아들을 수 없었다. 영어

도, 독일어도, 프랑스어도 아닌, 내가 전혀 알 수 없는 언어였다.

예배 후 알게 된 사실은, 이날 예배는 스웨덴 청년들이 스웨덴어로 드렸던 특별예배였다.

폐제 공동체에 참여한 스웨덴 루터교회 청년들이 오후 시간을 이용해 생트마리마들렌 교회에서 자기들만의 예배 시간을 가졌던 것이다.

스웨덴은 16세기 종교개혁 이후 루터교를 스웨덴 국교회로 받아들이면서 유럽에서 교세가 가장 큰 루터교 국가가 됐다. 그러나 2000년부터는 공식적으로 루터교가 국가에서 분리되면서 더 이상 스웨덴의 공식종교가 아니다. 오늘날 스웨덴은 전체 인구 천만 명 중 610만 명이 기독교 신자지만, 이들 중 많은 이가 명목상 기독교인이라고 한다. 나는 폐제 생트마리마들렌 교회에서 만난 스웨덴 루터교회 청년들이 무너져 가는 스웨덴 교회를 다시 부흥시킬 수 있을 거란 확신이 들었다. **동행**



생트마리마들렌 교회 내부



폐제 화해의 교회 (사진 : Christian Pulfrich)

▶ 2026년 종교개혁 그랜드투어



2026년 종교개혁 그랜드투어에 초대합니다!

주관: 영은교회 교육문화부

기간: 2026.7.20.~7.30/31(10박 11일)

경비: 1인 435만원 (불포함: 항공료)

신청: 11월 23일(주일)까지

방법: 11월 9~23일 주일, 1층 접수대

신청 혹은 김명희 권사에게 직접 신청

탐방지: 독일 8개 도시, 스위스 5개 도시,

프랑스 1개 도시(3국 14도시)

문의: 김명희 권사

찾아가는 온 세대 예배 - 영아부 예배에 함께한 장로님들 -



글 | 김정미 (영아부 교사)



9월 27일 주일 영아부 예배에 시무장로님 네 분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김영일 장로, 차재협 장로, 김석진 장로, 강대희 장로는 영아부 전용 앞치마를 입고 찬양과 율동을 함께해 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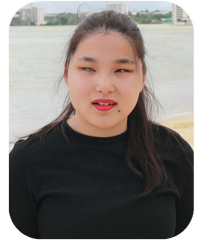
장로님들은 아이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셨고, 특별히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특송 “토끼 한 마리”를 불러 주셔서 영아부 예배실이 웃음과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또한, 장로님들이 영아부 친구들과 부모님, 또 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김석진 장로는 “가정과 교회에서 날마다 말씀의 양식을 먹으며, 믿음이 쑥쑥 자라나는 영아부 친구들과 부모님들을 보면서 영은교회의 미래를 그려 볼 수 있었습니

다”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찾아가는 온 세대 예배’는 다음 세대와 어른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예배드리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가장 어린 영아부에서부터 장로님들에 이르기까지, 온 교회가 서로를 품고 기도하며 믿음 안에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귀한 자리였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안에서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하며 자라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동행**

보지 못하는 나와 볼 수 있는 영은 청년들과 함께 한 괌 선교



글 | 신나라 (청년부)

저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입니다. 태어난 그 순간부터 빛만 겨우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20대 초반, 네팔로 선교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었음에도 저는 함께 가는 사람들에게 폐가 되지 않을까, 또한 뭔가 모를 죄책감이 들어 도전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런 제가 이번에 많은 청년과 목사님, 그리고 권사님과 함께 5박 6일(9/29~10/4) 동안 괌, 마이크로네시아에 다녀왔다는 것이 지금도 믿기지 않고, 제가 어떤 용기에서 신청하게 되었는지도 사실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히 선교를 준비하고, 괌 땅을 위해 기도하고 힘썼습니다. 꾸준히 모이는 것이 힘들다면 일부의 시간이라도 함께하려 했으며, 밥을 먹지 못하고 연습만 하고 갔던 팀원들도 있었습니다.

제겐 그 현신이 참 아름다워 보였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고 뿌듯해 하실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눈이 보이지 않아 워십과 레크레이션, 무언극 등을 같이 할 수 없어 모두에게 많은 미안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니 다녀온 지금도 매우 큰 미안함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를 데리러 오려고 로테이션을 구성한 임원들, 저를 돕기 위해 함께 이동하며 내 눈이 되어준 팀원들, 짐 패킹을 하거나 포장을 할 때 그것을 하지 못하는 제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좋다고 했던 한 팀원의 말까지... 괌 선교는 함께한 영은 청년들의 괌에 대한 사랑도 느낄 수 있었지만,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제가 선교에 기여이 함께 녹아들 수 있도록 저를 향해 베푼 사랑도 느낄 수 있던 시간

이었습니다.



쥬키스 교회에서 만나질 동안 함께한 마이크로네시아 원주민들

저희 ‘구함팀’은 선교를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서툴기도 하고, 서로의 리듬이 잘 맞지 않아 때로는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선교를 준비하는 도중 취업을 한 사람도, 개인의 일로 바쁘고 힘들었던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다 뒤로 하며 모든 팀원이 열심

괌 땅에서 사람들을 만나 서툰 영어로 말하고 대화하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알 수 있었고, 주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들의 뜨거운 마음을 체감할 수 있는 예배의 시간도 감사했습니다. 원주민들을 만나 함께 뛰며 찬양할 때도, 플루트로 찬

양을 연주할 때도, 특송을 부를 때도, 함께 기뻐하며 춤추는 꺄 주민들의 모습이 참 아름다웠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언극과 워십을 할 때마다 들려오는 박수 소리와 찬양에 호응하는 사람들을 보며, 우리가 준비한 모든 것이 다가갔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모르지만 좋은 음악을 들으려 왔다는 사람들에게도, 그저 아무것도 모르고 춤추는 어린아이에게도 주님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한 나날들이었습니다.



꺄에서 가장 큰 백화점인 마이크로네시아 몰에서 찬양과 워십으로 복음을 전하였다.

저는 선교지에 다녀와서 하나님을 힘껏 찬양하고, 자유롭게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주님을 알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꺄에서의 짧지만 길었던 일주일들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흘려보내는 내가 되어야겠다고, 그저 장애인이기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버리고, 내가 가능한 한 자리에서 주님을 더 찬양하고 바라보고 전하는 내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일주일간 서슴없이 제 눈이 되어준 구함 팀원 모두에게 이 글을 통해 참 감사했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동행**



제로다운을 돌아다니며 툭키스 교회에서 진행되는 구함팀의 사역을 위해 전도



툭키스 교회 마당에서 제로다운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무료 미용 사역

영은 늘푸른학교 추계야외학습



글 | 백정란 권사(늘푸른학교 교사)




모처럼 가을 햇살이 짙으며 맑고 청명했던 10월 23일 목요일, 영은 늘푸른학교 140명(학생 127명, 교사 13명)이 함께 추계야외학습을 다녀왔습니다. 이른 아침 7시 30분, 이승구 담임목사님의 기도로 출발한 버스 4대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첫 목적지인 강원도 춘천 삼악산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바라본 하늘은 유난히 푸르고, 발아래 펼쳐진 강줄기와 산자락엔 단풍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정상에서 함께 웃으며 찍은 사진들은 올가을의 가장 아름다운 한 장면이 되었습니다.

닭갈비로 유명한 통나무집에서 맛있는 점심식사를 한 뒤, 강원도 도립 화목원을 방문했습니다. 메타세쿼이아 숲길을

따라 걸으며 상쾌한 공기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했습니다. 숲속 쉼터에서는 다과를 나누며 늘푸른학교 교사 박찬경 권사가 진행하는 퀴즈와 행운권 추첨으로 즐거움이 더 해졌습니다. 모두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오고 가는 버스 안에서는 도착할 때까지 찬양이 계속되었습니다. 하루 일정을 마친 후 저녁에는 교회 근처 우림정 한식 뷔페에서 식사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빨간 모자를 단체로 쓴 학생들의 모습이 단풍처럼 자연과 어우러진 그 날,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정이 안전하고 평안하게 마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글 | 박미리 권사

엘림 여성 중창단 정기연주회를 마치고



2025년 10월 26일 주일 오후예배에 본당에서 엘림 여성 중창단의 정기연주회가 있었다.

단장 김영순 권사, 지휘자 조한나 선생님과 피아노반주 황지선 집사와 소프라노, 메조소프라노, 알토 단원들 11명이 1부에 3곡, 2부에 3곡 부르고 성도님들의 열렬한 응콜로 '주 한 분만이'로 모두 7곡을 불렀다. 1, 2부 사이에 우리교회 2부, 3부 찬양대에 속한 관현악단원인 양주형 선생님(단원 정순희 집사 딸)의 첼로 연주 Amazing Grace가 연주되었는데 연주자가 곡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 들려주는 감동의 무대였다. 2부 첫 곡인 '감사'는 첼로와 협연했다.

성도석에서 무대로 걸어 나오며 등장하는 새로운 시도를 했고 두 번째 무대 세 번째 곡 '누군가 기도하네'는 단장님의 수화가 너무 은혜로워서 부르는 단원들과 성도들의 눈가에 이슬 맺히는 감동의 무대가 되었다. 한편 '영화롭도다'는 모짜르트곡으로 알려져 있고 순서지에도 그렇게 나왔지만 2012년 학회에서 벤첼 밀러(Wenzell miller)라는 작곡가의 곡이라고 발표된 곡이다.

거의 1년 동안 연습해서 올린 무대에 단원들 먼저 은혜 가운데, 성도님들과 한마음으로 올린 가을에 걸맞는 멋진 행사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담임목사님과

성도 여러분들께 단원 모두의 감사를 전하며 무사히 연주회를 주관하시고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린다. **영은**




2025년 전국학생성경고사대회 - 중 · 고등부 단체전 대상, 개인전 대상 수상 -

글 | 김창원 통신원

지난 10월 18일(토) 중 · 고등부 전국연합회 전국학생성경고사대회가 본 교회에서 실시되었다. 중등부 개인전 127명, 단체전 22개팀, 고등부 개인전 47명, 단체전 11개팀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영은교회 중등부는 단체전 대상, 고등부는 개인전 대상 등을 수상하였다.

“청소년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중심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된 이번 성경고사대회에서는 상반기 공과내용과 구약과 신약 각각 4권씩을 시험범위로 하여 개인전은 지필고사로, 단체전은 성경 골든벨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대회에 중등부는 7명이, 고등부는 12명이 참가하였다. 중등부는 일주일째 1회 이상 1~2시간씩 성경을 찾으며 예상문제 및 모의고사를 풀고 대회에 임하였고, 고등부는 강남협의회 성경고사대회 단체전 3년 연속 대상의 저력을 바탕으로 학업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8월부터 꾸준히 시간을 내어 준비하였다.

이번 중등부 지도교사상을 수상한 임세제 선생님은 “바쁜 일정 중에도 본인의 시간을 쪼개어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고자 부단히 노력한 우리 학생들 모두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라고, 고등부 홍석인 선생님은 “크리스천 학생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학생들이 자랑스럽고 내년 내후년에도 이런 기회로 계속 함께했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수 상	수 상 자
개인전	중등부 : 정하랑(금상), 정하경(은상) 고등부 : 이혜빈(대상), 김하영(우수상), 한윤지(우수상), 김윤슬(장려상)
단체전	중등부 : 정하경, 정하랑, 김진유, 박정우(대상)
특별상	중등부 : 정하랑(호남신학대총장상), 정하경(한일장신대총장상) 고등부 : 이혜빈(장로회신학대총장상), 김하영(영남신학대총장상), 한윤지(부산장신대총장상)
지도교사상	중등부 : 임세제 교사





글 | 이단비 청년

2025년 마라나타 정기공연

1. 공연개요

키즈: 세 나무 이야기 / 유스: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

공연일시: 2025년 10월 25일(토)

공연장소: 영은교회 3층 비전홀

공연구성: 1막-키즈 뮤지컬(25분) → 인터미션 10분 →
2막-유스 뮤지컬(45분)

공연목적

– 영은교회 마라나타 성극단의 공연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늘 우리 곁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알리고자 준비하였다.

2. 작품 내용 요약

〈세 나무 이야기〉

세 그루의 나무가 저마다의 꿈을 품고 하늘을 향해 자라난다. 보석함이 되고 싶던 나무, 왕을 태우는 배가 되고 싶던 나무, 하나님을 드러내는 높은 나무. 하지만 그들의 꿈은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꺾이고, 구유와 배, 십자가로 변한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보석함이 되고 싶던 나무는 아기 예수님을 품은 구유가 되고, 왕을 태우고 싶던 나무는 풍랑을 잠재게 하신 예수님을 모신 배가 되며, 하늘을 향해 서고 싶던 나무는 인류를 구원하신 십자가가 된다.

이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장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음을 전한다.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

구두 수선공 마르틴이 가족과 이별의 아픔을 겪은 뒤, 성경을 읽으며 상처를 치유하고 하나님께 다시 사랑을 고백하는 이야기. 어느 날, 예수의 음성을 듣고 이웃을 도우며 선행을 실천하지만, 정작 예수님은 직접 만나지 못한다.

극의 마지막 때엔 마르틴이 성경을 펼치며 자신이 도운 이웃들이 사실은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며 극은 마무리된다.

3. 출연진 및 제작진 소개

마라나타 성극단의 임원진 및 배우들은 임성제(단장), 최세현(총무), 김지아(회계), 성지혜(서기), 신동호(부총무), 강태욱(2팀 팀장), 김슬미(유스 연출), 이단비(여인 역할, 어린이 역할), 이정민(마르틴), 이진표(스체파누이치, 할머니), 구민지(키즈 연출)로 구성되어 있다.

임원진은 마라나타의 행정과 공연의 스텝들로 역할을 맡고 있고, 연출자와 배우들은 공연을 직접 만들어 가는 과정을 함께하고 있다.

4. 공연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및 느낀 점

– 이번 마라나타의 공연은 키즈와 유스의 연결되는 내용의 구성이 돋보였다.

키즈의 공연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의 역할을 고민하며

모든 이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존재임을 드러내고, 유스의 공연을 통해 늘 함께하시는 이가 우리의 곁에 있는 이웃일 수 있다는 점을 고민하게 하며 우리의 일상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할 수 있다.

유스 공연을 담당하는 김슬미 연출자는 “작은 사랑의 실천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길임을 무대 위에서 다시 깨달았다. 톨스토이의 이야기처럼, 사랑이 머무는 그곳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 함께 마음을 모아준 모든 배우와 관객께 감사드린다”라며 공연에 대한 느낀점을 나눠주었고, 키즈 공연을 담당하는 구민지 연출자는 “‘세 나무 이야기’ 무대를 준비하며 하나님을 깊이 느끼는 시간이었다. 아이들이 연습하며 밝은 미소로 즐겁게 찬양하고 연기하는 모습을 보며 감사했다. 모든 준비과정을 통해 아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길 기도하게 되었고, 그리 되었을 거라 믿는다. 짧은 공연이지만 모두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소중한 시간이었다.”라며 공연을 준비하며 느낀 마음을 나눠주었다.


5. 마라나타 정기공연의 의미

– 영은교회 마라나타 성극단은 매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묵상을 통해 다양한 문화적인 요소를 사용하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 노력 해왔다.

25년 정기공연을 준비하기 위해 키즈 친구들에게 주어진 <세 나무 이야기>, 극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후에 이어지는 유스의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 극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늘 우리 안에 흘러넘치고 있다는 사실

을 전한다.

우리는 이 공연을 통하여 영은교회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다.

매년 준비하는 마라나타 정기공연은 마라나타 단원들에게 있어 반복적인 사역이 아니다. 준비하는 과정 속에 늘 새로운 만남과 과정이 있으며 넘치는 은혜가 있기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정기공연에 임하고 있다. 



이승철 목사 위임 및 임직예배

지난 10월 12일 주일 오후 4시 진지동교회 본당에서는 우리교회에서 시무하였던 이승철 목사 위임 및 임직예배가 있었다.

이날 예배에는 이 목사의 담임목사 위임 및 임직을 축하하기 위해 우리교회 이승구 목사를 비롯 많은 성도들이 참석했다. 이날 예배는 경북 시찰장이시고 웅담교회 담임목사인 강승남 목사의 인도와 서울 서북노회장이며 천광교회 이신기 목사의 설교로 진행됐다.

이신기 목사는 요한복음 21:15~17절 말씀과 <베드로의 위임식>이라는 설교를 통해 처음 사랑을 잊지 않기를 권면하며 세상의 것보다 목회의 정도(正道)를 가기 원하며 자신이 맡은 많은 성도들에게 최선을 다하기를 권하였다. 또 초심을 잃지 않고 성도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 진지동교회에서 큰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마쳤다.


이어 영은교회 이승구 담임목사는 보통 목사가 되기 위해 힘쓰기를 권했다. 그러면 특별한 목사가 될 것임을, 그리고 세상의 눈에 비범해 보이기보다는 말씀을 바르게 전하며 성도들을 정성껏 살피며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 꿇어 자신의 삶을 본보이는 목사가 되기를 권면했다.

한편 이승철목사는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목회자로 택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자신을 위해 위임식에서 말씀을 전한 목사님들과 예배를 위해 애쓴 진지동교회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 목사의 마음의 고향인 백학교회 성도들 그리고 영적침체로 어려움을 겪던

자신을 더 사랑해 주고 격려해 주어 어두웠던 시간을 회복할 수 있게 해 주신 영은교회 성도들과 이승구 목사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위임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위해 노력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도록 복음을 열심히 전하며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전도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지동교회를 위해 헌신을 다짐했다. 이날 진지동교회 담임목사로 위임받은 이승철목사는 국민대학교 영문학과 졸업, 장로회 신학대학원 신학과(M.DID) 졸업, 부산 장신대학교(Th:M)를 졸업하였다.

영광교회 교육전도사 역임, 대만 기쁨교회 전수선교사 역임, 영주교회 전임전도사 역임, 모라교회 부목사 역임, 자양교회 부목사 역임, 영은교회 부목사 역임

이후 자양교회 부목사를 거쳐 본교회인 영은교회 부목사로 2012년 10월 1일 부임 2022년 10월 23일 진지동교회 담임목사로 사역하기 위해 사임했다.

가족으로는 이효선 사모와의 슬하에 우진, 정진, 찬진 3남이 있다. 



제25회 영은가족찬양제



글 | 이덕형 안수집사



2025년 10월 19일 주일 오후예배에 음영부 주관 제25회 영은가족찬양제가 진행되었다. 이전까지 가족 및 기관찬양 대회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으나, 교회 안에서 찬양을 사랑하는 가족, 지인, 다양한 소모임, 소그룹 등 작은 친교 단위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영은가족찬양제'로 행사의 명칭을 변경하였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예배부 박대원 목사님, 음영부장 정재근 장로, 채수범 지휘자, 그리고 이한주 지휘자가 찬양제 심사위원으로 함께하였다. 예배분과장 김우권 장

로의 인사말과 기도로 영은가족찬양제가 시작되었다. 첫 번째 순서인 갈렙남성합창단의 찬조공연을 시작으로 최종 본선에 진출한 9팀의 뜨거운 찬양 경연이 진행되었다. 다양한 악기와 함께 멋진 찬양을 선사한 '앰블레포', 사랑이 넘치는 부부듀엣 '은하부부', 은퇴권사님 12명으로 구성된 '용기종기', 독특한 무대연출과 수준 높은 랩을 선보인 '승리하는 꿈자람부'가 뜨거운 응원과 열기 속에 찬양제 전반부 경연을 마쳤다. 후반부 시작 전 이승구 담임목사님과 교역자들이

함께 모인 ‘영은 교역자팀’이 은혜가 충만한 찬양을 전하였다. 이어지는 경연에는 ‘영은 덤앤더머팀’이 재미있는 율동과 복장으로 즐거움을 선사하였고, 이어서 원로·은퇴장로회의 신앙고백과 같은 감사 찬양으로 모두의 가슴에 울림을 주었다. 일곱 번째 팀으로 40여 년 만에 찬양제 무대에 다시 선 ‘양남동 4남매팀’의 가족의 사랑을 듬뿍 담은 찬양이 이어졌다. 말레이시아 단기선교 소모임인 ‘영송결팀’의 컬러풀한 찬양이 뒤를 이었으며, 유아부 청년교사 소모임인 ‘어른천사찬양대’가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을 담은 찬양곡으로 마지막 경연을 마쳤다.

특별히 이전 찬양제에서 볼 수 없었던 온·오프라인 동시 현장 투표에 의한 특별 인기상 선정 방식은 참가팀과 성도 모두의 참여와 흥미를 유발하며, 매우 신선했다는 평가다.

마지막 찬조 공연으로 시온찬양대 지휘자인 테너 채수범 선생의 찬양곡이 멋지게 연주되었다. 심사 결과, 성도가 현장 투표로 직접 뽑은 특별 인기상은 ‘어른천사찬양대’가 수상했으며, 이후 본선 진출 9개 팀 모두 심사위원의 점수에 따른 역순으로 시상이 이루어졌다. 2위에 해당하는 믿음상은 ‘승

리하는 꿈자람부’가 수상했으며, 대망의 1등인 사랑상은 ‘어른천사찬양대’가 수상했다. 현장투표와 심사위원의 심사가 일치하는 놀라운 결과가 모두의 탄성을 자아냈다. 이승구 목사님의 마지막 감상평을 끝으로, 2025년 제25회 영은가족찬양제를 모두 마치게 되었다. 영은가족찬양제가 진행되는 순간순간 영은교회의 모든 성도가 한마음으로 찬양에 몰들며 은혜가 충만한 기쁨의 시간이었다. 영은가족찬양제의 준비 과정과 행사의 시작과 마무리까지 동행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동행**



교회언어 바로잡기



글 | 최광주 목사

깊어가는 가을, 예쁘게 물들어가는 나뭇잎들처럼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물들어가고 풍성한 결실을 맺어가기를 바랍니다. 이번 달에도 교회 안에 잘못된 언어를 바로잡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립니다.
(X) →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
으로 기도드립니다.(O)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립니다.'를 문법적으로 그 구조를 분석해 보면 ①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한다.' +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 ②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한다.' + '(우리는) 기도한다.'입니다. 이렇게 분석되는 이 표현은 어떻게 보더라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문장이 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만약 위에서 제시된 문장의 속뜻을 내타내려면 '감사하옵고'를 '예수님 이름으로' 바로 앞에 두면 됩니다.

'주일학교'
(X) →
'교회학교'
(O)

'주일학교'가 주일에 문을 여는 학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 '교회학교'는 교회에 속한 교육기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곧 교회학교는 요일과는 관계없이 교회교육을 하는 학교라는 뜻이 담겨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일학교'보다는 '교회학교'라는 말이 더 바람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X)
→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O)

기도의 끝마무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고 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적절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주'가 예수님을 가리킬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가리킬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주님이라 호칭하고, 기도의 끝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시편 '제○○장'
(X) → 시편
'제○○편' (O)

시편은 전체가 하나의 일관성 있는 글이 아니고, 각각 독립된 개별적인 시이기 때문에 장이 아닌 편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
니다.' (X) →
예수님의 이름
으로 '기도
합니다.' (O)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기도의 내용은 현재형인데 그 끝을 과거형 '기도하였습니다.'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재형인 '기도합니다.'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출처-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기독교용어연구위원회)

과몰입이 필요한 시대


클 | 이숙경 기자

작년 5월, 대만의 한 지하철역에서 흥기난동 사건이 있었다. 당시 현장에 있던 20대 청년은 흥기에 본인이 다치면서도 범인을 제압해 시민을 보호했는데, 이 청년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대답했다. “용사 힘멜이라면 그렇게 했을 테니까.” <장송의 프리퀀>이라는 애니메이션 속의 대사였다. 무언가에 지나치게 폭 빠지는 현상을 ‘과몰입’이라고 한다. 요즘에는 조롱이나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다지만, 실은 나도 과몰입 인간이다. 소설이든 만화든, 작품마다 과몰입하는 인물이 꼭 한 명씩 있다. 인물에 과몰입하게 되면, 작품에 설명되지 않은 그 인물의 과거와 미래를 상상하게 되고, 그 인물의 작은 습관도 흉내내고 싶어진다. 한때 애니메이션인 <겨울왕국>의 엘사에게 과몰입해서, 엘사의 드레스를 일상복처럼 입고 다니던 어린이들처럼. 그 결과 나는 작가가 됐다. 대만의 청년도 만화에 등장하는 인물에 과몰입했고, 그 인물처럼 되고 싶어했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을 구했다. 과몰입에는 그만한 힘이 있다.

우리는 모두 무언가에 과몰입한다. 어쩔 때는 돈에, 혹은 학벌에, 자녀에게, 연예인에게……. 그것을 소유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어서 안달이 난다. 하루 종일 그 생각 뿐이고, 대화의 주제도 온통 그것뿐이다. 무엇이 사람을 과몰입하게 만드는가. 그것은 사랑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수많은 세상의 것들에 과몰입하는 것만큼 예수님에게 과몰입하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말만큼 과몰입하고 있을까? 만화에 과몰입한 사람도 목숨을 걸만큼 용감해지는데, 우리는 얼마큼 예수님을 흉내내고 있을까? 우리는 정말로 예

수님을 이해하고 싶고, 따라 하고 싶나?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해 본 적은 있나? 제임스 티소 작가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바라본 것>이라는 그림을 소개하고 싶다. 대부분의 종교화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자체를 그린다. 그것은 ‘나’의 시점이다. 그러나 본 작품은 우리를 바라보는, 자신을 십자가에 매단 사람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점을 그렸다. 우리는 이 쓰디쓴잔을 지나칠길 바랐을 만큼 두렵고 고통스러웠던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해 보려 한 적이 있었나? 예수님께 바라는 것은 많으면서, 그 고통을 상상하며 마음 아파해 본 적은 있을까. 혹은, 그 크나큰 사랑을 흉내라도 내보려 한 적이 있었던가.

이제는 과몰입해야 할 것에 과몰입해야 할 때이다. 그리고 언젠가 세상 사람이 내게 왜 그렇게 했느냐 묻거든 자랑스럽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했을 테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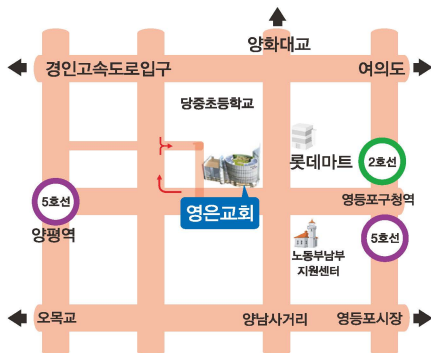
▶ 교회를 섬기는 분들

원로목사 허남기
 담임목사 이승구
 부목사 최광주 이준희 이예리아 박대원 정성훈
 한진구 신요한 김민식 이찬양
 교육목사 전수현
 전도사 장미애 김영락 김찬영
 교육전도사 나진희 박선민 황금성 황예찬 손예지
 정학수
 파송선교사 구용희 백현이
 협동목사 소병찬 김규리

▶ 영은교회 예배시간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본 당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00	
	4부 오후 1:30	
오후예배	오후 3:30	본 당
수요일예배	오후 7:30	본 당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5:30	본 당
금요심야기도회	금요일 오후 8:30	본 당
영아부	주일 오전 11:00	1층 영아부실
유아부	주일 오전 11:00	비전센터 2층
유치부	주일 오전 11:00	비전센터 2층
유년부	주일 오전 11:00	비전센터 5층
초등부	주일 오전 11:00	비전센터 5층
소년부	주일 오전 11:00	비전센터 5층
꿈자람부	주일 오후 1:30	비전센터 2층
중등부	주일 오전 11:00	비전센터 비전홀 3층
고등부	주일 오전 9:00	비전센터 비전홀 3층
청년부	주일 오후 1:30	비전센터 비전홀 3층

▶ 영은교회 찾아오는 길



대한예수교장로회 영은교회
www.youngeun.or.kr
 월간동행 e-mail : yemagazine@naver.com